

과학기술인들이

팔방미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회

글 | 김동환 _ 고려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 donghwan@korea.ac.kr

봄이 오고 있다. 아직 바람이 차지만 뺏속까지 파고들었던 지난 한겨울의 추위는 아니다. 공원의 양지 바른 곳에는 얼음이 녹아 촉촉한 기운이 돌고 파란 새싹이 어느새 돋아 있다. 앞으로 몇 번의 꽃샘추위가 있겠지만 그래도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다. 겨우내 마음을 답답하게 했던 일도 이제는 몇몇 사람에게 뒷정리를 맡기고 우리는 다시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우리 나라의 과학 기술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불과 20년 전인 1980년대초만 해도 실험은 실습에 가까웠으며 연구는 답습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한국의 과학 기술은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압축 성장을 경험한 셈이다. 따라서 오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다소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서 스스로에게 관대해 질 필요가 있다. 불행한 사건 하나가 불신과 냉소로 이어진다면 회복되기 어려운 정체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유학 시절이었던 1989년 어느 날 “저온 핵융합(cold fusion)이 성공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매스컴은 대서특필했고, 한국에서도 어느 물리학자가 TV에 물 한 컵을 들고 나와서 “이 정도의 물로 새마호호 열차를 부산까지 보낼 수 있는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다는 소문도 들었다. 그런데 필자의 지도 교수는 그 얘기가 나오자 “그분들이 혹시 핵융합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닐까” 하고 일축해 버렸다. 학문적으로 존경해 마지않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 필자로서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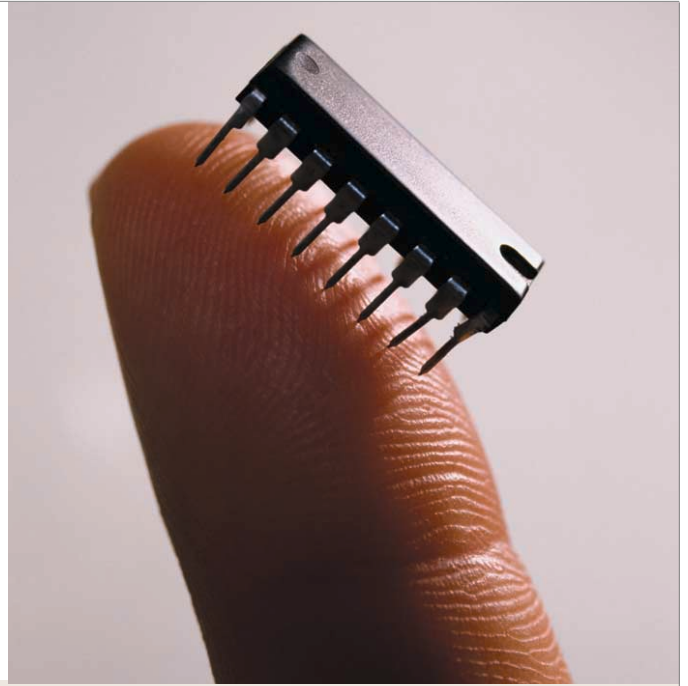
그러나 오래 지나지 않아 저온 핵융합에 대한 신빙성이 도전을 받는가 싶더니 곧 아무도 거론하지 않는 이슈로 묻혀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폰즈 박사와 플라이시먼 박사가 실험 결과를 처음 발표하였을 때의 사회적 충격이나 반응은 매우 컸지만 그 소동이 진정되면서 미국 사회가 보인 태도는 ‘실망스럽지만 있을 수 있는 해프닝’ 정도로 정리하는 것 같았다.

우리 사회가 노벨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망은 조금증에 가깝다. 스타성이 있는 과학자가 나오자마자 그에 대한 맹목에 가까운 신뢰와 지지가 이를 입증한다. 70년대에 국민적 스포츠가 프로복싱이었다고 한다면 요즘 사람은 아마 믿지 않을 것이다. 한국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모두 TV 앞에 앉아서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권투 시합이 있는 날은 거리도 한산했고 남자들은 권투 얘기만 했을 정도였다. 한국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 요원하게만 느껴졌지만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극적으로 따 내더니 그 다음부터는 연이어 세계 챔피언이 탄생되었다.

노벨상이든 복싱 챔피언이든 기본 토양이 중요하다. 노벨상을 염두에 두기보다 과학 기술 연구와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충실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한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면 의견이 갈린다.

필자는 과학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특성이나 성향 분석을 통해 이 부류의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연구를 먼저 할 것을 제안한다. 과학기술자들은 대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교육을 받았고, 전체보다는 단순화되고 잘 정의된 부분에 대해 집중하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들은 사회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사람



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도 이렇게 단순하고 논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 과학 기술계가 최근 몇 년간 겪어야 했던 변화 내지 개혁은 이런 과학기술자들의 성향과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자. 경제 위기를 겪던 1990년대말에 국가출연 연구기관의 정년을 65세에서 61세로 낮추었다. 과학기술자는 열심히 자기 관심 분야의 연구에 몰두하기보다는 노후를 걱정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하고, 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개혁의 내용에 더듬이를 곤추 세우는 편이 이롭다고 판단하게 되었는지 모른다.

불행하게도 그 판단은 옳았다. 이보다 앞서 나온 것이기는 하지만 연구비 수주 규모에 따라 월급이 차등 지급되는 PBS(Project Based System)에 따라 연구원들은 연구비를 따러 다니느라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사례는 또 있다. 모든 연구원을 연구비 수주액, 논문 및 특허 수 등으로 점수를 매겨 A에서 D까지 등급을 나눈 후 2년 연달아 D등급을 받은 연구원을 퇴출시키는 소위 'DDR'가 그것이다. 박사에게 석차를 매긴다는 얘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일 것이다.

조직 이론 중에 '파레토의 20 : 80 법칙'이란 게 있다. 상위 20%가 전체 일의 80%를 담당하는 조직이 정상적인 조직이라는 것이다. 훌륭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위 20%를 더욱 유능하게 만드는 편이 효율적이다. 하위 80%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해서 조직이 더 능률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하위 80%가 조직 구성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도 재미있다. 개미 집단을 관찰해 본 결과 하루 종일 부지런히 움직이는 개미들도 사실 그 중 20%만 일하고 나머지 80%는 의미 없이 돌아다니기만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 왜 과학기술 연구원들에게만 유독 상위 100%가 되기를 강요하고, 연구비도 잘 따오고, 논문도 잘 쓰고, 특허도 많이 내는 팔방미인하기를 요구하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연구소의 행정직에게 성적을 매기고 퇴출시킨다는 말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이 러니 연구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데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과학기술인을 대접하는 시스템이 그에 걸맞게 선진화되어야 한다. 잘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을 더욱 부추기고 격려하는 시스템 개발과 운영에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들이 속한 조직의 원리가 단순해야 한다. 실험실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 전문성을 높이면 최소한의 지위는 보장되는 것 말이다.

봄이 오고 있다. 겨우내 꽁꽁 얼었던 계곡에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릴 것 같다. 어느덧 봄에 대한 새로운 기대가 가슴에 차오른다. 이제부터라도 연구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나머지 80% 과학 기술인들에게는 묵묵히 자기 분야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길 바란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인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되길 기대해본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 졸업 후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스탠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